

이슬람 금융 용어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연구*
- Mufāʿalah 형태를 중심으로

윤은경**, 김동환***

Yun, Eun Kyeong, Kim, Dong Hwan, 2014, A Morphological & Semantic Study on Islamic Financial Terminology - Focused on the Pattern of Mufāʿalah, *Arabic Language & Literature*, Vol. 18, No.2, pp. 27-47.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morphological & semantic features of Islamic financial terminology - focused on the pattern of mufāʿalah. Generally, one of the larges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abic language is the existence of the root and linguistic pattern. Most Arabic words, as like the other Semitic languages, and as the entire vocabulary in those languages, are based on a set of two, three, four (but mainly three consonants) called a root. The root communicates the basic meaning of the verb. Changes to the vowels in between the consonants, along with the various affixes like prefixes or suffixes, specify grammatical functions such as person, gender, number, tense, mood, and voice. Focusing on the root, many words are derived by the various affixes. This derivation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Arabic as a Semitic language. In this paper, we mainly pay attention that many of Islamic financial terms, especially those commonly used in trade terms are taking pattern of /Mufāʿalah/, maṣdar of the form 3 verb /fāʿala/. This verb usually gives an associative meaning to the form 1 verb, describes someone doing the act in question to or with someone else. In this context, we can find that many of Islamic financial terms takes the pattern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of ‘Mufāṣalah’, like Mubādalah, Murābaḥah, Muḍārabah, Mushārahah, Muṣāmalah, Mughārasah, Muzāraḥah, Musāqah, Munāhadah, Muhāyaʿah and so on. These terms are using in Islamic financ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corporation. So we suggest that meaning of the pattern of ‘Mufāṣalah’ in Arabic morphology & semantics includes ‘to do something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corporation’.

[Key Word: Islamic Financial Terminology, Arabic Morphology, Semantics, Mufāṣalah, Root, Pattern/이슬람 금융 용어, 아랍어 형태론, 의미론, 무파알라, 어근, 어형]

I. 서론

아랍어는 언어 분류 상 셈어족(Semitic language family)에 속하는 언어이다. 셈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모국어 화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 때문에 유엔에서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아랍어는 그 형성이 가장 늦은 “가장 젊은 셈어”이면서 다른 셈어족 언어들보다 원시 셈어에 가까운 순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Nicholson 1977, 14). 아랍어의 어휘들은 대부분이 세 개의 어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어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접사가 붙어 파생 어휘들을 만들어낸다.

무슬림들의 성서인 코란이 아랍어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아랍어는 알라의 신성한 언어로서 성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 등의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종교어로서 아랍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무슬림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용어들을 배워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과 아랍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 경제와 금융에

대한 연구는 1990년 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주로 샤리아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 금융 거래 방식, 시장 분석, 수쿠크(Sukuk)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금융, 경제학 관점에서의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이슬람 금융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2장에서는 아랍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과 파생 동사들의 형태와 의미, 특히 Mufaṣalah(مفاعلة) 형태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용어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4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향후 연구 전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아랍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

2.1 아랍어의 형태론적 특징

아랍어의 형태론적 특징은 다른 셈 어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근(root)과 어형(pattern)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랍어 단어들은 대부분 3개의 어근으로 구성되고 이 어근들과 관련된 형태 - 의미론적 구조를 이룬다(윤은경 2010). 아랍어 파생 과정을 특징짓는 어근과 어형의 유기적 체계는 모든 셈 어들을 다른 어족들과 구별 짓는 셈 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도 간주된다. 예를 들어 아랍어에서 /ktb/이라는 어근은 ‘글’, 혹은 ‘쓰기, 책’ 등의 의미와 관계있는 어근이다. 이 어근 자음들은 모음이 없이는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특정한 모음 패턴을 통해서만 그 구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kataba/는 ‘그는 썼다’라는 의미로서 C1aC2aC3a¹의 어형을 이용한 활용이고 /kattaba/는 C1aCC2aC3a의 형태로 ‘그는 ~를 쓰

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C1uCC2āC3의 형태인 /kuttāb/은 ‘코란 학교’를 의미한다. C1iC2āC3i 형태인 /kitābī/는 ‘서식의, 글의’라는 의미를 가지며 C1uC2uC3i 형태인 /kutubī/는 ‘책을 파는 사람,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자음과의 교착이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는데 /maktaba/는 maC1C2aC3a 형태로 ‘도서관, 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랍어의 파생 체계는 현존하는 세계 주요 언어들 중 아랍어가 어휘 면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가 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이다.

아랍의 문법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아랍어 품사를 크게 명사류(ism), 동사(fīʿl), 불변사(harf) 세 가지로 분류했다. 아랍어는 언어학적으로 굴절어로 분류되는데 명사류와 동사들이 모두 어미변화를 하기 때문이다. 명사류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격(case), 성(gender), 한정사(determination), 수(number)에 따라 어미변화 한다. 명사의 격은 3가지 즉 주격(~은), 소유격(~의), 목적격(~을)이 있으며 이 격변화는 대부분의 명사류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3격 명사 외에 두 가지 격 모음만을 가지는 2격 명사류가 있는데 주로 고유명사, 일부 불규칙 복수 명사들이 해당된다.

아랍어 동사의 경우 주어의 인칭(1인칭, 2인칭, 3인칭), 성(남성, 여성), 수(단수, 양수, 복수)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근을 중심으로 하는 동사 어간(stem)에 다양한 접사들이 접두나 접요, 접미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며 완료동사와 미완료 동사의 활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아랍어 완료동사(fīʿl māḍī)는 동사의 어말이 변화하고 미완료 동사(fīʿl muḍāriʿ)는 동사의 어두와 어말이 변화한다.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미완료 동사는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미완료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완료 동사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지만 문맥에 따라 완료 동사 속에 과거완료, 현재, 미래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랍어 동사는 시제(과거, 현재, 미래)와 상(완료, 미완료)의 의미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1 C1aC2aC3a에서 C1은 단어의 첫 번째 어근, C2는 두 번째 어근, C3은 세 번째 어근을 의미한다.

2.2 파생 동사와 Mufaʿalah(مفاعلة)형태의 의미적 특징

본 2.2 절에서는 아랍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들을 파생 동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아랍어 동사는 기본형 동사 외에도 15가지 정도의 파생 동사가 있으며 현대 표준 아랍어에서는 주로 9가지의 파생 동사가 사용된다. 이 동사들은 다양한 접두, 접요, 접미 형태소들을 가지며 여러 가지 형태로 동사 활용된다. 동사 어근 /f ʿ l/을 이용 파생 동사들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윤은경 2010).

<표 2-1> 아랍어 파생 동사²

동사형	완료	미완료(직설형)	동명사 (maṣdar)	의미
I	faʿala, faʿula, faʿila	yafʿulu, yafʿilu, yaffʿalu	다양함	(기본형)
II	faʿʿala	yufaʿʿilu	tafʿīl, tafʿīlah	(사역, 타동사화, 의미 강화)
III	fāʿala	yufāʿilu	mufaʿalah	(상호관계)
IV	?afʿala	yufʿilu	?ifʿāl	(사역)
V	tafaʿʿala	yatafaʿʿalu	tafaʿʿul	(재귀)
VI	tafāʿala	yatafāʿalu	tafāʿul	(상호관계, 재귀)
VII	infaʿala	yanfaʿilu	infiʿāl	(수동, 재귀)
VIII	iftaʿala	yaftaʿilu	iftiʿāl	(수동, 재귀)
IX	ifʿalla	yaffʿallu	iffʿilāl	(색깔, 신체)

2 파생 동사들을 번호로 구분하는 것은 서구학자들의 방법론이다. 고전 아랍 문법가들은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의 형태들에 따라 1형은 /faʿila/ /faʿula/ /faʿala/, 2형은 /faʿʿala/, 3형은 /fāʿala/ 등으로 구분한다.

				결합)
X	istafāla	yastaffīlu	istiffāl	(요청, 재귀, 판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아랍어 동사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하는 어간에 여러 가지 접사들이 접두, 접요, 접미 되면서 관련된 의미의 다양한 파생 동사들을 갖는다.

1형 동사는 /faʿala/, /faʿūla/, /faʿīla/ 형태를 취하며 단어 어근의 기본 의미를 지닌다. 동명사(maṣdar)의 형태는 다양하다. 2형 동사 /faʿʿala/는 ‘사역, 타동사화, 의미 강화’라는 의미적 특징을 가지며 동명사의 형태는 주로 /tafʿīl/ 형태를 취한다³. 예를 들어 1형 동사 /ʿalima/는 ‘알다’의 의미이지만 2형 동사 /ʿallama/는 ‘~을 알게 만들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동사 /kasara/는 ‘깨뜨리다, 부러뜨리다’의 의미이지만 2형 동사 /kassara/는 ‘박살내다, 산산히 부수다’라는 보다 더 강화된 의미를 갖는다.

3형 동사 /fāʿala/는 1형 동사의 의미에 비해 ‘타동사 화’의 의미를 갖거나 ‘~와 ~을 하다’라는 상호성의 의미를 갖는 것이 특징이며 동명사 형태는 /mufaʿʿalah/이다. 예를 들어 1형 동사 /salama/는 ‘무사하다, 안전하다’의 의미를 갖는 반면 3형 동사 /sālama/는 ‘~와 화해하다, ~와 화목하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명사는 /musālamah/로 ‘화해, 타협’ 등의 의미를 갖는다.

Haywood(2005)와 Fuad(2005)에 따르면 3형 동사/fāʿala/와 동명사 /mufaʿʿalah/의 형태·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형 동사가 전치사를 갖는 의미를 단독으로 대신한다.

예를 들면 1형 동사 /kataba/는 ‘쓰다’의 의미인 반면 3형 동사 /kātaba/는

3 2형 동사 중 마지막 어근이 약자음(wāw, yāʾ)이거나 함자인 경우 /tafʿīlah/ 형태의 동명사를 갖는다.

‘~에게 쓰다’라는 의미가 되며 동명사는 /mukātabah/ ‘서신왕래’이다.

예) /kataba lahā risālah/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kātabaha/ ‘그는 그녀와 서신 왕래를 했다’

/jalasa ʿindahā /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jālasahā / ‘그는 그녀의 옆에(그녀와 함께) 앉았다’

2) 1형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의 시도나 노력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sabaqa/는 ‘~를 앞서다, 능가하다’이지만 /sābaqa/는 ‘~를 앞서려고 노력하다’, ‘~와 경주하다’의 의미가 된다. 동명사는 /musābaqah/ ‘경주, 시합’이다. 또한 /qatala/는 ‘죽이다’의 의미이지만 /qātala/는 ‘~를 죽이려고 시도하다, 다투다, 전투하다’의 의미가 되며 동명사는 /muqātalah/ ‘싸움, 전투, 격투’가 된다.

3) 1형 동사가 의미 하는 내용을 상대에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latafa/는 ‘친절하다’의 의미이지만 /lātafa/는 ‘~에게 친절히 대하다’라는 의미가 되며 동명사는 /mulātafah/ ‘친절, 상냥함’이 된다.

예) /latafa farīd linnās/ ‘파리드는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lātafahum farīd / ‘파리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khashana farīd/ ‘파리드는 거칠었다’

/khāshanahum farīd/ ‘파리드는 그들에게 거칠게 대했다’

나머지 파생 동사들에 대해 살펴보면 4형 동사 /ʾaʿfala/는 ‘자동사나 타동사의 사역 화 및 이중 타동사화’의 의미를 가지며 동명사는 /ʾifʿal/ 형태를

갖는다. 5형 동사 /tafaʿʿala/는 2형 동사 /faʿʿala/의 재귀적 의미나 ‘자기주장’의 의미를 가지며 동명사는 /tafaʿʿul/ 형태이다. 6형 동사 /tafaʿʿala/는 3형 동사 /faʿʿala/의 재귀적 의미나 ‘상호성,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며 동명사는 /tafaʿʿul/ 형태이다. 7형 동사 /infaʿʿala/는 1형 동사의 재귀적 의미나 수동의 의미를 가지며 동명사는 /infaʿʿal/ 형태이다. 8형 동사 /iftaʿʿala/는 1형 동사의 재귀적 의미나 수동의 의미, 가끔 6형 동사와 같은 ‘상호성’의 의미를 갖기도 하며 동명사는 /iftaʿʿal/ 형태이다. 9형 동사 /ifʿʿala/는 ‘색깔’이나 ‘신체적 결합’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자동사로만 사용되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동사이며 동명사는 /ifʿʿal/ 형태이다. 10형 동사 /istaʿʿala/는 4형 동사 /ʿaʿʿala/의 재귀적 의미나 ‘요구, 요청’, ‘사역’, ‘판단이나 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동명사는 /istaʿʿal/ 형태이다⁴.

III. 이슬람 금융 용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

최근 들어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용어들의 사용도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자면 ‘판매(Bayʿi)’, ‘임대, 사용료(Ijārah)’, ‘증여(Hibah)’, ‘대부(ʿariyah)’, ‘리바(Ribā,이자, 고리대금)’, 할부(Taqṣīt) 등이다. 이러한 기본 용어 외에도 이슬람 금융 분야, 특히 상거래에 관련된 용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Mufaʿʿalah 형태이다. 예를 들면 Mubādalah, Murābahah, Muḍārabah, Mushārahah, Muʿāmalah, Mughārasah, Muzārahah, Musāqah 등으로서 주로 이슬람 금융 거래 방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물론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상거래에 관련된 용어들은 주로 Mufaʿʿalah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4 아랍어 파생동사의 형태·의미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 A. Haywood(2005), A New Arabic Grammar of the Written Language, pp159-160, Fuad Tarazi(2005), *Al-ishtiqāq*, pp245- 246 등 참조.

는 아랍어 파생에서 *Mufaʿalah* 형이 갖는 형태·의미적 특징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거래에서 ‘누가 누구에게 ~을 하다’라는 표현을 아랍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 주어 + 간접 목적어 + 직접 목적어]의 순으로 문장이 구성된다. 또한 ‘누가 누구와 함께 ~을 하다’라는 문장을 아랍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 주어 + 목적어(1) + 전치사 + 목적어(2)]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어 파생 동사들 중 3형 동사 /faʿala/ 형태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누가 누구와 함께 ~을 하다’는 의미의 문장을 쉽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슬람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금융 거래와 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 명사는 아랍어로 ‘무아말라 (*Muʿāmalah*, معاملة)’이다. 이런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당사자들이 존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내놓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기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해 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출된 결과가 이윤을 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 서로가 그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본 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 용어들 중 주로 상거래 방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파알라 형태 용어들의 형태·의미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우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이슬람의 전형적인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⁵.

5 본 논문에서 *Mufaʿalah* 형태의 이슬람 금융, 상거래 명칭을 제시하기 위해 *Muʿjam al-muʿtalahāt al-māliyah wa al-iqtiṣādiyyah fī lughat al-fuqahāʾ*와 *Muʿjam lughat al-fuqahāʾ*와 *Muʿjam al-ʿislāmī*와 *Qamūs al-mustalahāt al-iqtiṣādiyyah fī al-ḥaḍārah al-ʿislāmiyyah*와 *al-mausūʿah al-fiqhiyyah al-muyassarrah* 등을 참고했다.

3.1 일반적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1) 무아말라 (Muṣāmalah, معاملة):

일반적으로 ‘판매와 구매 거래’를 의미한다. 또한 ‘상거래’라는 이름으로 ‘무아말라 티자리아(Muṣāmalah tijāriyyah, معاملة تجارية)’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무아말라’가 여성 규칙 복수형 ‘무아말라트(Muṣāmalāt, معاملات)’로 사용되면 ‘판매와 구매’, 그리고 ‘이자라(Ijarah, 임대)’와 같은 세속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법률적 혹은 율법적 규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

2) 무바달라 (Mubādalah, مبادلة):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환’이란 두 등가물을 교환하는 쌍무거래를 말한다. 금전과 금전의 교환이나 금전과 효용의 교환이나 효용과 효용간의 교환을 의미한다. 말리키 학파는 ‘현금으로 액수에 상응하는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3) 무카야다 (Muqāyaḍah, مقايضة):

‘바꾸다, 쪼개다’라는 의미의 어근 /qayaḍa/에서 파생된 3형 동사 /qāyaḍa/의 동명사로서 ‘교환’을 의미한다. 교환되는 두 대상에 금전이 아닌 현물과 현물 간의 교환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물물교환(barter trade)로 해석된다. 말리키 학파를 제외한 다른 학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말리키 학파는 이런 거래를 두고 ‘무아와다’라고 부른다.

4) 무아와다 (Muṣāwaḍah, معاوضة):

‘대응, 대가, 보상’을 의미하는 이와드 (iwaḍ, عوض)에서 파생되었으며 두 개의 등가물의 교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계약을 의미하는 쌍무계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대를 의미하는 이자라 (Ijarah, اجارة)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무하사 (Muḥāṣṣah, محاصة):

어떤 것을 자신의 몫에 따라 분할해서 갖는 것을 의미한다. ‘몫이 되다’라는 의미의 원형 동사 /ḥaṣṣa/에서 파생된 3형 동사 /ḥāṣṣa/ ‘몫을 주다, 서로 나누어 가지다’의 동명사 형태이다. 예를 들어 파산한 채무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 규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분할하여 받게 된다.

6) 무아카다 (Muṣāqadah, معاقدة):

‘~을 매다, 묶다, 계약을 맺다’라는 의미의 원형 동사 /ṣāqada/에서 파생되어 ‘~와 계약을 체결 한다’는 의미의 3형 동사 /ṣāqada/의 동명사 형태이다. 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7) 무사와마 (Musāwamah, مساومة):

‘상품을 팔려고 내놓다, 말기다’는 의미의 원형 동사 /sawama/에서 파생된 3형 동사 /sāwama/ ‘홍정하다’의 동명사 형태이다.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는 ‘판매인이 물건을 내놓고 가격을 제시하면 구매인은 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팔려는 상품의 원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쌍방이 합의해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8) 무마카사 (Mumākasah, مماكسة):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상거래에서 상품의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로써 홍정을 하게 되어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말한다.

9) 무자야다 (Muzāyadah, مزايده):

‘경매(auction)’를 의미한다. 상품 구매 희망자들이 참여하는 구매현장에서 경매인의 중개를 통해 구매 희망자들 간에 상품의 가격을 높여 최고가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0) 무나카사 (Munāqasah, مناقصة):

상품 구매 희망자들이 모여 최저가를 부르는 구매 희망자에게 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무나자자 (Munājazah, مناجزة):

‘직불거래’를 의미한다.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과 동시에 두 대상물인 물건과 돈이 서로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12) 무아타 (Muṣāṭah, معاطاة):

‘정찰제 판매’를 의미한다. ‘~을 주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어휘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이미 가격과 물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 특별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값을 치르고 상품을 인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13) 무하야아 (Muhāyaʾah, مهياة):

‘교대, 순번, 당직’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 순번에 따라 자산의 효용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이나 장소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두 사람이 공동의 땅을 경작하는데 올해에는 이 사람이 경작을 하고 다음해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며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이 사람이 살고 다음해에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공동의 땅을 경작하는데 절반은 이 사람이 경작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 사람이 경작하는 거나 공동 주택의 경우 한 쪽은 이 사람이 살고 다른 쪽은 저 사람이 살거나 위층은 이 사람이 살고 아래층은 저 사람이 사는 것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14) 무나하다 (Munāhadah, مناهدة):

‘여행에서 일행이 어떤 개별적인 지출을 위해 각자가 얼마씩 각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동일한 금액을 각출할 필요는 없다. 각출한 금액

으로 먹을 것을 살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일행들 보다 더 많이 먹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15) 무나칼라 (Munāqalah, منافلة):

‘이동, 이전,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지분 교환이나 이전’을 의미한다. 특히 종교 재산(Waqf) 소속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하거나 기존의 와크프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 매입하는 것을 거래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 와크프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 지분과 맞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2 전통적 이슬람 금융 거래에 사용 되는 용어

3.1 절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파알라 형태의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 3.2 절에서는 전통적인 이슬람 금융 거래 방식에서 나타나는 무파알라 형태의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무라바하 (Murābahah, مرايهة):

판매자가 판매하고자하는 상품에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려는 상품의 원가를 반드시 알려주고 이에 자신의 이윤 (riḥḥ, ربح)이 얼마가 추가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원가가 알려지지 않을 경우 ‘무라바하’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무라바하’ 거래가 신용 판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Muhammad Rawwās 2006,89).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정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와 무라바하 거래의 가장 큰 차이는 상품 원가가 알려지는 것이며 또 다른 점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흥정되는 대상이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판매자가 원가에 추가해서 얻게 되는 이윤(마진)이라는 것이다(김동환 2013,57).

2) 무다라바 (Muḍārabah, مضاربة):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무다라바는 이라크 지방의 단어였으며 아라비아 반도의 히자즈 지방에서는 끼라드(Qirād قراض) 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조각이라는 의미의 까르드 (Qard قرض) 에서 파생된 어휘이다. 이는 자금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금 중 일정 금액을 할애하여 노동자에게 주기 때문이다(Hasan alamīn 2000,19). 이슬람 샤리아에서 허용하는 자본과 노동 간의 합의된 합자 형태이다.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자본주를 ‘랍브 알말 (Rab al-māl رب المال)’이라고 부른다. 노동을 제공 하는 사람을 ‘무다립 (Muḍārib مضارب)’이라고 부른다.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자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계약이다(Wahbat alzuḥaili 2002,438).

거래자들이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자본과 노동을 공유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하는 거래 방식이다. 사도 무함마드는 부인 카디자와 결혼하기 전 카디자의 돈을 받아 그녀의 대리인으로서 대상 무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사도 무함마드가 카디자의 ‘무다립’으로서 ‘무다라바’ 거래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다라바’ 거래는 증권이나 채권과 같은 상업 증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것을 거래하는데도 이용되지 않는다. 거래 종료 시점에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은 쌍방 간의 합의된 비율로 분배된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공되었던 금전적 손실은 자본주 ‘랍브 알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노동을 제공했던 ‘무다립’은 거래 기간 동안 투입된 자신의 노동과 시간의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김동환 2013,58).

3) 무샤라카 (Mushārahah, مشاركة):

‘여러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소유물을 섞다’라는 /sharika(شرك)에서 파생된 3형 동사 /shārahah/의 동명사 형태로서 그 의미가 ‘두 동업자가 섞이다’는 의미로 확대된다(Ibn Manẓur 2008:vol. 8,67). 이는 이윤 실현을 목표로

경제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동업자 혹은 다수의 동업자들 자신들의 자금을 출자하는 동업 또는 공동경영의 형태이다. 노동비용(인건비)을 포함해 사업 운영에 투입된 제반 경비가 공제된 후에 동업자 각자가 투입한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윤이 동업자들에게 분배된다. 이럴 경우 제반 경비는 금액이 명시되지만 분배되는 이윤의 경우 그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비율이 제시되어야 한다. 손실의 경우는 출자한 각자의 자금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본 '무다라바'와 '무샤라카' 거래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1차 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은 당사자들 각자가 제공하는 자금이나 노동이며 또 2차적으로는 사업 결과에 따른 이윤 또는 손실이 된다.

4) 무자라아 (Muzāraʿah, مزارعة):

‘소작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zaraʿa/에서 파생되어 ‘서로 소작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확대된 3형 동사 /zāraʿa/의 동명사 형태이다 (Muḥammad Rawwās 2006,393). 땅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체결되는 소작 계약을 뜻한다. 수확은 쌍방 간의 계약 시점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한 쪽에서는 땅을 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노동을 대는 형식이며 땅에 뭔가를 심어야한 계약이 성사 된다(Nazīh Ḥammād 2008,411). 마치 무다라바 거래에서 한 쪽은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노동을 제공하는 형식과 같다.

결과에 대한 땅 주인의 몫은 땅에서 생산된 수확물 자체 대한 일정한 몫이지 순 이윤의 얼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Wahbat alzuḥaili 2005,4685). 만약 땅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소작농은 그간 자신이 쏟았던 노력과 노동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잃게 된다. 땅 주인의 경우는 땅의 효용을 잃게 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본주와 노동자(무자라아의 경우는 소작농)가 각자의 손실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자라아’ 거래와 ‘무다라바’ 거래는 같은 형태를 갖는다.

5) 무사까 (Musāqāh, مساقاة):

‘서로 물을 주다, 서로 물을 대다’라는 의미의 동사 /sāqā/에서 파생된다. 물 공급을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갑이 을과 합의해서 포도 농장이나 대추 농장을 일구고 물을 줘서 우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는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농장의 주인이 갖게 된다. 이라크 인들은 이를 두고 무아말라 (Mu‘āmalah)라고 부르기도 한다(Ibn Manẓur 2008:vol. 8,213). 농장을 일구고 개선한 사람에게 결실의 일부로서 나무나 포도를 지불하는 거래이다. 이는 이미 심어진 유실수를 관리한 사람에게 보편적인 열매의 양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나무의 주인을 ‘무사긴 (Musāqin)’이라고 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아밀 (āmīl)’이라고 한다. 한 쪽은 나무를 대고 다른 한 쪽은 나무를 키워 얻은 결실을 둘 사이에 합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Nazīh Ḥammād 2008,412).

6) 무가라사 (Mughārasah, مغارسة):

‘나무를 심다’는 의미의 동사 /gharasa/에서 파생되었다. 빈 땅에 나무를 심어 일구는 것에 대한 계약이다. 어떤 사람이 나무가 없는 빈 땅을 열매를 나눠 갖는다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나무를 그 곳에 심을 사람에게 맡긴다(Nazīh Ḥammād 2008,341).

위에서 살펴 본 ‘무자라아’, ‘무사까’, ‘무가라사’와 같은 이슬람 농업 금융거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동 제공자는 자신이 투여했던 노동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잃게 되고 자본을 제공한 자본주는 금전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과 자본과 노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무다라바’ 거래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된 ‘무다라바’, ‘무사라카’, ‘무자라아’, ‘무가라사’, ‘무사까’와 같은 방식들은 협업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으로 모두 율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환 2013,181).

- ① 무다라바: 노동과 자본이 혼합되어 이윤을 공유
- ② 무자라야: 노동과 자본(토지)이 혼합되어 작물을 공유
- ③ 무사카: 노동과 자본(기존의 유실수)이 혼합되어 수확물을 공유
- ④ 무가라사: 노동과 자본(새로운 유실수)이 혼합되어 수확물을 공유
- ⑤ 무샤라카: 자본과 자본이 혼합되어 이윤을 공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무과알라 형태를 갖는 이슬람 금융 거래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거래자들이 ‘서로 ~을 하다’는 고유의 의미로 부터 출발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 하다’ 또는 ‘서로 협력하여 ~을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래의 형태로 발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공유라는 부분은 결과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비율이나 규칙에 따라 결과만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무과알라’ 형태를 갖는 금융. 통상 거래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공유하게 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이다. 양자 간 상호 신뢰가 없다면 ‘무다라바’ 거래에서 ‘자금 주(랍브 알말)’가 ‘노동자(무다랍)’에게 사업자금 전체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무자라야’ 거래에서 땅 주인이 노동자에게 자신의 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불가능 할 것이다. 이 용어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들을 분석해 보면 무과알라 형태를 취하는 3형 동사와 동명사의 사전적인 의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 하다’, ‘상호 협력하여 ~을 공유 하다’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IV. 결론

지금까지 이슬람 금융 용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에 대해 *Mufaʿalah*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랍어의 가장 큰 형태론적 특징은 일정한 어근(root)과 어형(patter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랍어 단어들은 대부분 3개의 어근으로 구성되고 이 어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사들이 접두, 접요, 접미 되면서 많은 어휘들이 파생되며 이 단어들은 어근과 관련된 형태·의미론적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어근과 어형의 유기적 파생 체계는 셈 어들의 대표적 특징이자 아랍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 금융 용어 들 중 주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Mufaʿalah*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용어들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특징 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거래에서 ‘누가 누구에게 ~을 하다’라는 표현을 아랍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 주어 + 간접 목적어 + 직접 목적어]의 순으로 문장이 구성된다. 또한 ‘누가 누구와 함께 ~을 하다’라는 문장을 아랍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 주어 + 목적어(1) + 전치사 + 목적어(2)]의 형태로 문장이 구성된다. 그러나 아랍어 파생 동사들 중 3형 동사 /faʿala/ 형태를 사용하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누가 누구와 함께 ~을 하다’는 의미의 문장을 쉽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어 파생 동사 중 상호성의 의미를 지니는 3형 동사와 동명사 *Mufaʿalah* 의 형태들이 이슬람 금융 용어 특히 상거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Mubādalāh*, *Murābaḥah*, *Muḍārabah*, *Mushārahah*, *Muʿāmalah*, *Mughārasah*, *Muzārahah*, *Musāqah*, *Munāhadah*, *Muhāyaʿah*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아랍어 형태·의미론에서 3형 동사와 동명사의 사전적인 의미 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 하다.’ ‘상호 협력하여 ~을 공유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시간과 여건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슬람

금융 용어 중 상거래에 관한 아랍어 용어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용어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아랍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징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동환(2013a). “이슬람 금융 거래 방식의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3호, 한국이슬람학회.
- (2013b).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합한 시장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32권 2호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 변광수(2003). 『세계 주요 언어』, 역락.
- 송경숙, 이종택(2009). 『완벽아랍어문법』, 삼지사.
- 오명근(1996). 『아랍어 구 문어체 비교론』, 서울,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윤은경(2010). “이집트 방송아랍어의 형태론적 특징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4집 2호,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 이규철(2011). “아랍어의 화폐단위명의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5집 1호,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 이종택(2012). 『현대아랍어문법』, 도서출판 싹람.
- 정규영(2011). “아랍어 품사의 유형론적 특징”,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5집 1호,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 Ashraf Taha Abu Aldahab(2002). *Al-muʿam al-ʿislāmi*, Dār al-shurūq, Cairo.
- Fuad Hannā Tarazi(2005). *Al-ishtiāq*, Maktabat Lubnān Nāshirūn, Lebanon
- Ḥasan Al-amīn(2000). *Al-muḍārabah al-sharʿiyyah*, Al-maʿhad al-ʿislāmi lilʿanmiyyah, Jeddah.
- Ibn Manzur(2008). *Lisān al-ʿarab*, Dār Ṣādir, Beirut.
- J. A. Haywood, H M Nahmad,(2005). *A New Arabic Grammar of the Written Language*, Lund Humphries, London.
- Khalil ʿAtiyah(2002). *Qawaʿid al-lughah al-ʿarabiyyah*, Dār al-shurūq, Cairo.
- Muḥammad Rawwās Qalʿahji(2000). *Al-mawsuʿah al-fiqhiyyah al-muyassarah*, Dār al-nafāis, Beirut.
- (2006). *Muḥam Lughat al-fuqahāʿ?*, Dār an-nafāis, Beirut.

- Muḥammad ‘Imārah(2009). *Qamūs al-muṣṭalahāt al-iqtisādiyyah fi al-ḥaḍārah al-ʾislāmiyyah*, Dār al-salām. Cairo.
- Nazīh Hammād(2008). *Muṣṭam al-muṣṭalahāt al-māliyyah wa al-iqtisādiyyah fi lughat al-fuqahāʾ?* Dār alqalam, Damascus.
- Reynold A. Nicholson(1977). *A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steegh, K.(1997).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ahbat Al-zuhāili(2002). *Al-muṣāmalāt al-māliyyah al-muṣāsirah*, Dār al-fikr, Damascus.
- (2005). *Al-fiqh Al-ʾislāmi wa ʾadillatuhu*, Dār al-fikr, Damascus.
- Wehr, Hans(1974). *A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3rd ed.* Librairie du Liban.
- Wright, W.(1991). *A Grammar of the Arabic Language, 3rd ed.* University Press, Cambridge, London. 2:92B

논문접수일: 2014년 6월 19일
심사완료일: 2014년 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5일